

## 오피니언

## 光日春秋

박석무



조선왕조 5백년은 선비정신으로 버렸던 나라였다. 여러 차례 국난을 당했었고, 임진·병자의 양반에는 사실상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이를 참혹한 형편의 나리였다. 그러나 망하기 직전의 나라는 다시 살아나 무려 500년의 긴 세월을 견뎌냈다.

그렇게 벼텨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 든다면 바로 조선민족의 선비정신이었다. 국난에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건져내야겠다는 선비정신, 자신의 몸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선비정신, 못 먹고 뜯고 못 살아도 한 가닥 양심과 도덕성만은 버리지 못한다던 선비정신, 모두와 함께 살고 기쁨과 슬픔도 남과 함께 나누자던 선비정신이 조선을 동방에의 국가으로 만들었고 나라가 그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때라고 모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류층의 지성인들은 오늘처럼 돈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위해서 염치없이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만이 제일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은 사람 많았었다. 자

기만이 대통령령이라고 떠들면서 추호라 이 오늘처럼 많지는 않았었다. 자기보다 학식이 높고, 인격과 덕행이 높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벼슬이나 이권까지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선비정신을 지닌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자

하면서 말하기를 ‘높은 나이의 대석학이 다음 자리의 벼슬에 있고, 나이가 어리고 학문이 부족한 제가 감히 웃자리에 있을 은 합당하지 않으니, 자리를 바꾸어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황도 힘껏 사양하여 오래지 않아 다시 벼슬이 교체되어 박순이 대제학이 되었다.

500년 조선사에 아름답고 멋진 역사의 한토막이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퇴계 이황(1501~1570)은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다. 사암 박순(朴淳: 1523~1589)은 일찍이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제학에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 대제학도 양보했던 선비정신

도 양보하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매도당할 정도의 그런 물상식한 세상이 그 때는 아니었다. 상대방을 꺾어야려야만 자기가 올라간다는 요즘의 그런 논리를 지나지 않은 선비들이 그래도 있었다. 그것이 조선의 힘이었다.

조선시대의 그때로 가보자. ‘조선왕조 실록’의 ‘선조수정실록’에 나오는 기록이다. 선조 원년(1568) 8월 초하루의 기사에 퇴계 이황이 홍문관 겸 예문관 대제학에 제수되는 기록이 있다.

“이황이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게 하다. 이때 박순이 대제학이 되자 이황은 제학으로 있었는데, 박순이 사양

역임한 학자이자 시인이던 큰 정치가였다. 박순은 하단 서경덕의 제자였지만 퇴계 문하에도 출입하면서 도를 물었던 선비였다.

선조 원년은 퇴계 68세, 사암 46세의 시절, 박순의 양보가 없었다면 70세로 세상을 떠나는 퇴계의 이력에는 대제학이라는 그 찬란한 벼슬이 없었지 않겠는가. 정승의 지위보다야 아래이지만, 세상에서 아주 높이 여기는 벼슬이 대제학이었다.

그런 벼슬을 선배 학자에게 양보할 줄 알았던 선비 정치가 박순의 이름다운 행위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미화할 수 있었는가. 오래지 않아 사양하고 양보할 줄 알

던 선비 퇴계 때문에 박순은 바로 대제학에 오르지만, 이런 사양과 양보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비정신인가.

수십억을 공천현금으로 상납하고라도 결단코 국회의원을 해야겠다는 사람, 친구고 선배고 스승이고 무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이 고관대작이 되어야 한다는 요즘 사람들은 그 때의 선비들은 분명히 달랐었다. 나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지 다른 어떤 사람도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결코 양보 없이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는 요즘 사람들은 그때의 선비들은 많이 달랐다.

이런 말세에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한 안철수 교수의 선비정신은 대단했다. 선배에게 기꺼이 양보한 그런 멋진 모습이 지금도 그립다.

온 세상이 후보 경선으로 자기만이 최고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세상, 사양하고 양보해서 진짜 선비가 후보로 선정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미덕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사암 박순의 이름다운 양보가 이런 시절에 생각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대제학을 양보하니, 다시 또 대제학이 되돌아왔던 그때 일이 잊히지 않음은 웬일일까.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제아무리 뛰어고쳐도 언젠가는 허물 어지고 말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으로 해서 생긴 불안일까.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과파이다.

외모 지상주의, 스펙 우선주의, 학벌·학력 우월주의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열려가고 있다.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고 몸집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주여성, 상사 주재원 등이 이제 120만을 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경쟁과 비교 따위나 불들고 있는 좋은 시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방의 시대에, 우리는 서 있다. 키가 크든 작은, 학벌이 있든 없든, 코가 높든 낮든, 전라도 태생이든 경상도 태생이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당신의 의식은 세계의 변방에 있다고 봐야 한다.

외모 따위나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면, 바로 그 우월감이 자신의 품플렉스를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에서 보면 한마디로, 촌스러운 감정 상태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한다면 남을 의식해서 스스로 느끼는 자기 품플렉스도 줄어드는 선진 문화사회가 빨리 도래할 것이다.

〈시엘병원 원장〉

어제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담배에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인간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1종 발암물질은 총 15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흡연자에게는 효과적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금연정보를 제공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이 어려우므로, 어린 나이부터 흡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담배의 폐해를 드러내는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고는 경고문구보다 흡연자들에게 담배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금연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경고는 담배갑에 전체적인 매력, 즉 이미지와 브랜드를 의식하는 젊고 새로운 흡연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능인 매력을 감소시킨다. 이제라도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 담배의 진실, 제대로 보여주자

고문구 및 그림을 삽입하여 흡연자들로 하여금 담배의 폐해를 알게 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도록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 도입은 그림이 혐오감을 주고, 이러한 방안이 흡연을 감소에 영향을 볼로 주지 않는다고 반대하여 입법과정에 실패했다.

현재 법적으로 담뱃갑에 그림경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는 23개 국가에 이르고 그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흡연의 폐해에 대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담뱃갑의 더 넓은 면적을 이용하여 그림경구를 기재하고 또한 경구의 내용도 점점 더 강력하고 섬뜩하게 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더하여 아무 깡도 디자인도 없이 담배 브랜드명만 기록된 평범한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로 넘어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등을 담뱃갑 앞면에 하단에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0%로 하고 있다.

흡연자의 금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담뱃갑 전면 전체에 그림경구를 도입하고 경구의 내용도 강렬하게 해야 한다. 모든 담뱃갑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자, 발가락이 썩는 그림, 흡연에 의한 폐와 심장 병변 그리고 썩어가는 치아와 치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모든 실내 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화, 마일드나 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담배광고 및 후원의 표절적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 판매 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 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담배사법을 직·간접 흡연자 모두 자신이 어떤 유해 성분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머지 중요 성분의 경우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배 연기는 4000여의 화학물질로 이루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취약계층 폭염대책 ‘생색내기용’인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보호대책은 극히 허술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대책이 형식적이거나 ‘사무방문’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장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에 배정된 지원금은 고작 6200만 원에 불과하다. 광주지역에 1235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5만원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생색내기용이 된다.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은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건강은 물론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광주시는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자치구와 함께 폭염대비 활동대책반을 구성해 취약계층의 사전 건강관리 등 매뉴얼화된 폭염쉼터로 지정했다.

## 국제적 망신 산 박람회 관객 집단 식중독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십명이 식중독의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찾는 박람회장 인근 식당에서 이런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니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7일 새벽 2시께 여수시 서동 모 교회에서 숙박하던 관광객 24명이 구토와 복통 증세로 여수전남병원 등 인근 4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박람회 관람자 여수에 와 한 식당에서 점심으로 계장반찬을 먹고, 저녁에는 개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같은 식당에서 계장반찬을 먹은 11명이, 6일에는 또 다른 식당에서 계장반찬을 먹은 4명이 식중독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수보건소는 환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별병 의심 물질을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계장반찬을

## 無等鼓

새누리당 공천현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천현금이 오갔을 정황이 하나둘씩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을 벙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또 충동적이고 자극을 주구하며, 책임감이 없고, 사회규범을 쉽게 위반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사이코패스(psychopath)라 부른다.

정치인 관련 사안이 터지면 진실이 드러날 때 까지 그들은 우선 부인부터 한다. 진실이 드러나면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물러나거나 값싼 죄값을 치르고 몇 해 후 복귀해 뻔뻔스럽게 정직을 다

시 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못 보게 할 게 아니라 정치인 관련 뉴스를 보지 못하게 해야 할 지경이다.

사이코패스(Psychopathy)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속하는 하위 범주로서, 공감 및 죄책감, 자기중심성, 날을 잘 속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서, 대인관계에서는 공감 능력 부

/최재호 경제부장 lion@

말 잘하고 거짓을 서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는 데 따른 암시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치인들이 사이코패스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특히 사이코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는 뻔뻔함이다. 뇌물을 쟁기로 뻔뻔하게 부인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이코패스 형 정치인들이 빌붙이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면 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름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